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545-559,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545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기혼간호사의 일-가정양립경험: 가족확대기 간호사를 중심으로

김한나[1], 김정선[2*]
[1]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2]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Work-Family Compatibility Experience of Married Nurse: Focusing on the Expanding Stage of the Family Life Cycle

Han-Na Kim[1], Jeong-Seon Kim[2*]
[1]**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의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 7명의 참여로 2015년 6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의 경험은 29개의 주제와 12개의 주제모음,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최종 도출된 4개의 범주는 '일과 양육 병행에 대한 현실', '일과 양육 양립의 대한 외적・내적 갈등',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과의 타협', '양립을 위한 성장 욕구와 노력'으로 분석되었다. 기혼간호사의 일과 가정 양립의 원동력은 전문직 여성으로써의 가치감과 아이 양육에서의 행복감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기혼간호사의 일과 가정 병행을 위한 기관 및 가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work-family compatibility experience of married nurses.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were 7 registered nurses who are on the expanding stage of their family life cycle.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June 10 to November 30, 2015 and analyzed using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by Colaizzi (1978).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ork-family compatibility experience of married nurses may be categorized into 4 categories, 'the reality of work and parenting', 'external and internal conflicts about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parenting', 'compromise with reality for solving the difficulty of compatibility', 'growing desire and efforts for compatibility', and may be identified with 12 theme clusters and 29 themes. The worthiness as a professional woman and happiness in child rearing are the driving force of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in married nurses. Therefore, the continued support of government policies and family is important for married nurses to maintain work and family balance.

Keywords : experience, family life cycle, married nurse, phenomenological study

1. 서론

1.1 연구 배경

가정생활주기 중 확대기 가족은 자녀출산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시기를 말하며[1], 이 시기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하여 가족체계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족구조 및 가족구성원의 관계와 역할 변화가 초래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즉, 첫 자녀 출생과 동시에 초보 부부는 여러 가지 역할 혼란과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2,3],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타인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죄책감이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4].

*Corresponding Author : Jeong-Seon Kim(Choon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Tel: +82-10-7411-3260 email: ring700@hanmail.net
Received January 22, 2016 Revised (1st February 1, 2016, 2nd February 3, 2016)
Accepted February 4, 2016 Published February 29, 2016

첫 자녀의 출산을 통해 가족관계는 지금까지의 이차 세계에서 삼차세계로 전환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전환의 시기는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5]. 특히 양육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영아기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6].

어머니는 일차적인 양육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버지에 비해 높고, 특히 취업모일 경우 이중역할로 인한 갈등이 훨씬 심하다.[5]

특히 간호직은 여성의 대표적인 전문 직업으로 알려진 간호사는 신체 및 심리적 갈등이 가장 높은 직업 중의 하나이다[7]. 최근 들어 환자의 권익보호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 확대로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소모가 과거에 비해 증가되었다. 24시간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교대근무가 불가피하며 이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불규칙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업무로 피로가 야기됨을 시사하고 있다.[8]

기혼 간호사들은 교대근무나 야간 근무 등으로 가정에서는 자녀 돌봄 및 가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직장에서는 가족의 문제나 가사로 인해 병원에서의 직무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한 역할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9,10], 일과 가정 간의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다.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갈등은 결국 스트레스, 이직, 소진, 직업 불만족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11].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의 전 생애에 걸쳐 제기되는 이슈지만, 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직장에서의 업무수행과 승진의 압박,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받으면서 심리적 부담을 많이 경험한다[12]. 특히 30개월 미만의 맏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들은 현재는 자녀양육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남은 생애에 걸쳐 자신 또는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의 돌봄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13]. 따라서 특정시기가 아닌 가족발달주기 상 가족확대기는 일과 가족이라는 두 가지 생애목표를 중요한 구성 원리로 수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다[1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의 주관성이 반영된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화 하여 다차원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고 이들의 일-가정 양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가 경험한 일-가정 양립 경험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간호사가 경험하는 일-가정 양립 경험에 대한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양육과 가사, 그리고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경험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laizzi(1978)[14]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의 의미 및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Colaizzi 분석방법은 개인의 속성보다는 연구 참여자 전체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속성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가 경험한 일-가정 양립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2 연구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가 경험한 일-가정 양립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기혼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는 Duvall의 가족발달주기에 따라 맏자녀 출생에서부터 30개월까지의 가족확대기에 속하는 기혼간호사로 교대근무로 3년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한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결과는 Table 1과 같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2세였으며(범위: 28-34세),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4명,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2명, 기관에 맡기고 있는 경우가 1명 이었다. 참여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상・중・하에서 모두 '중'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초대졸 이상이었다.

종교는 무교 2명, 기독교 3명, 천주교 1명, 불교 1명이었다. 자녀의 개월 수는 12개월 3명, 18개월 2명, 24개월이 2명이었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자료가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 11월 30일까지였다.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시작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참여자들은 7명이고,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휴일에 참여자의 집과 가까운 카페, 주거시설내의 휴게 공간, 직장일 경우 미리 허락을 받아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직장 내 조용한 휴게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진행시키기 위한 주요 질문으로 “일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한 사람 당 3-4회 실시하였으며, 1회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1차면담에서는 면대면으로 진행하였고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면담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론적 포화에 도달하였다.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자는 참여자의 의미 있는 표정과 행동 등을 메모하였으며, 적극적인 경청자로서의 입장을 유지하였고 면담자료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 세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반복 청취한 뒤 필사하고, 이후 다시 되풀이해서 녹음을 들으면서 재확인하였다. 연구자는 면담한 즉시 참여자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간략히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다음 면담자를 위한 질문사항을 메모하였다. 메모와 검토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참여자에게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연령, 성별, 취업기간, 자녀, 자녀양육자 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15]가 제시한 4가지 항목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참여자들의 생각과 실제를 반영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수집하였다. 면담을 수행한 연구자의 양육 경험은 참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용어와 어휘 선택에 도움이 되었고, 참여자에게 신뢰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범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를 위하여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포화시켰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와 유사하게 일-양육을 병행하는 간호사 3인에게 본 연구의 결과가 그들의 일-양육 양립 경험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경험에 대해 바르게 진술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분석결과는 질적연구의 경험이 있는 2명의 연구자가 함께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문헌고찰을 하지 않았으며 연구자의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에 의한 가정, 편견 등에 유의하였으며, 중립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들의 일-가정 양립 경험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심층면담 후 녹음해 온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들으면서 대상자의 진술 그대로를 글로 옮겨 기술하였다.

둘째, 자료로부터 느낌을 얻기 위해 기술한 대상자의 모든 진술들을 반복적으로 집중하여 읽었다.

셋째,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탐구현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였다.

넷째,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다섯째, 원래의 진술과 분리되지 않도록 숙고하면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로부터 연구자의 언어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여섯째, 도출된 의미의 구성에서 주제를 뽑고 각 주제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들을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원 자료와의 일치 또는 모순 여부를 확인하였다.

일곱째,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들을 하나의 기술로 통합한 후, 이것을 연구현상의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진술로 최종적으로 기술하였다. 여덟째, 최종적인 기술을 타당화 시키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 지를 질문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와의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일 대학에서 기관연구윤리심의원회(IRB No: CH-201510-03)의 승인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기관의 간호부서장의 허락 하에 해당 기관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참여자와 직접 만나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 연구제목, 연구절차를 서면으로 제시하며 충분히 설명하여 자의적으로 동의를 받고 자료를 수집 하였다. 동의 내용에는 면담 참여는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면담은 녹음될 것이고 면담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 될 것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료수집과정과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설명하고, 참여과정 중에라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 참여에 관한 불이익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면담과정의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약속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2.7 연구자의 준비

질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연구자 2명은 3교대 근무로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정신병동이나 상담기관에서 정신건강 관련 상담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학하였으며, 연구자 모두 질적 연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질적 연구학회에 참여 및 월례모임 참석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자료수집에 끝나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 간의 오차를 최소화화기 위하여 토의 시간을 가지고 매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고 입력하였으며, 다음 면담 시 질문할 내용과 주의할 부분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과 결과에 대한 분석은 질적 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지속적인 반성과정을 유지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7명의 참여자로부터 얻은 원 자료에서 총 78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추출되었다. 의미 있는 진술의 구절과 문장을 철저히 읽으면서 의미가 서로 유사한 것을 묶고, 다시 원 자료를 읽으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12개의 주제모음을 확인하여 범주화한 결과 ‘일과 양육 병행에 대한 현실’, ‘일과 양육 양립의 대한 외적・내적 갈등’,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과의 타협‘, ‘양립을 위한 성장 욕구와 노력’ 등의 4개 범주로 주제모음의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3.1 일과 양육 병행에 대한 현실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의 첫 번째 범주는 일과 양육 병행에 대한 현실로 나타났으며, 이 범주에는 ‘꿈 뿐인 슈퍼우먼’, ‘가족들에게 이해 받지 못하는 현실’, ‘직장의 현실과 제도간의 괴리’의 3개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Age	Length of work (year)	Child's age (month)	Surrogate caregivers	Number of interview
(1)	28	3	12	Mother	3
(2)	28	3	12	Mother in law	3
(3)	29	4	18	Baby sitter	4
(4)	30	4	18	Mother	4
(5)	30	4	12	Baby sitter	3
(6)	32	5	24	Sister	4
(7)	34	7	24	Mother	3

Table 2. The experiences of Work-Family Compatibility of Married Nurse

themes	themes clusters	categories
• never-ending work • sorry for the family • difficulty of shift-work and childcare	• only dream superwoman	the reality of work and parenting
• helpless husband • family relationship difficulties • uneasy workplace culture	• reality of not being understood by family members	
• system excluding shift-workers • opinion of head nurse powerful than regulation • complaints about body changes after childbirth	• the alienation between the reality of work and system	
• meaningless conversation with single friend • no time for me • careless mother	• missing self	external and internal conflicts about the compatibility of work and parenting
• being sorry for the children who are alone • pressure to adapt to new jobs	• self-accusation as incapable mother	
• fear of being left behind than others • delay for economic reasons	• conflict about maintaining job	
• sacrifice for a family health • accepting the parents' parenting methods	• hesitate for practical problems	
• acknowledge being aunt • winding one eye on housework	• balancing the compatibility	compromise with reality for solving the difficulty of compatibility
• family support and encouragement • reliable supporter, husband	• cooperation and care of family	
•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with a positive family relations •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child's developmental stage • consciousness expansion for care	• Applying the experience of compatibility to work and family	growing desire and efforts for compatibility
• happiness that comes from child • effective time management for work and family	• effort for work and family	
• pride rewarding for the nurse professional • preparation and expectations for competency development	• identifying my professional presence and value	

3.1.1 꿈뿐인 슈퍼우먼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퇴근 없는 직장', '가족에 대한 미안함', '교대근무와 육아 병행에 대한 버거움'의 3개 주제는 '꿈뿐인 슈퍼우먼'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1.1.1 퇴근 없는 직장

전업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가사의 대부분을 떠맡음으로써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사 일을 병행하는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지만 퇴근이 없는 끝없는 업무에 버거워함을 느꼈다.

"이브닝 끝나고 오면 밤 12시에요. 바로 쓰러져서 자고 싶은데... 주부로 다시 출근이죠. 다 차려놓고 간 저녁은 먹었으면 좀 치워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고. 쌓여 있는 집안일을 보면 진짜 짜증나요."

"애기가 새벽 1시면 꼭 깨요. 엄마(친정어머니)가 하루 종일 보셨으니, 새벽엔 제가 우유를 먹여요. 물론 아기가 예쁘죠. 그렇다고 피곤하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죠. 아. 끝이 없어요."

3.1.1.2 가족에 대한 미안함

연구 참여자들은 일과 가사 일을 혼자 병행할 수 없어 부모나 남편에게 의존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지만, 특히 첫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부모에 대한 죄송함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였다.

"남들은 일하면서 애 키우고 다 잘 하는데, 전 왜 이렇게 힘이 들지요? 애기한테 미안해요. 일주일에 한번 얼굴 보러 오니. 어머니(시어머니)한테도 죄송하고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요. 교대 근무하는 저로써는 가족들 도움도 받아야 하죠. 남편도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해하지만 휴일에는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고, 평일에는 엄마가 집에 와서 아이를 키워주시기는 하지만 아이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집안 살림도 해주시고

또 남편 저녁까지 챙겨주시는 엄마한테 죄송하죠.”

3.1.1.3 교대근무와 육아 병행에 대한 버거움

교대근무로 일하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자녀건강 문제나 돌봄 문제로 인해 엄마로써의 역할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직이나 퇴직을 고민하고 있었다.

“퇴근할 때 놀이터 근처에서 애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엄마들을 보면, 확 나도 그만둬. 애만 키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3.1.2 가족들에게 이해 받지 못하는 현실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도와주지 않는 남편’, ‘가족 관계 유지가 어려움’의 2개 주제는 ‘가족들에게 이해 받지 못하는 현실’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1.2.1 도와주지 않는 남편

가사와 육아에서 남편의 도움과 지지를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사 일은 물론, 육아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양육에 관심이 없거나 협조하지 않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드러냈다.

“남편요? 안 도와줘요. 절대로요. 집안일은 산더민데 축구하러 가고. 나는 스트레스 쌓여도 이렇게 참고 있는데, 나도 풀고 싶어요. 저 혼자만 부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교대근무로 인해서 남편과 휴일을 보내는 것도 어렵고, 불규칙한 제 생활로 남편도 가끔 짜증을 내요. 아이가 울면 엄마를 우선 찾아요. 아이를 달래거나 목욕시키는 것도 다 제 몫이죠. 남편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3.1.2.2 가족 관계 유지가 어려움

육체적, 심리적으로 힘들어짐에 따라 점차 가족 간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연구 참여자의 불규칙한 교대근무는 배우자와 생활패턴이 맞지 않아 더욱 대화의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교대근무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남편이랑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퇴근해서 오면 자고 있거나 제가 자고 있을 때 남편이 출근하거나 하니까요. 아직 연차가 어려 마음대로 휴가도 낼 수 없어서 집안 행사도 다 참석하진 못하죠. 그리고 병원 일에 지쳐서 집에 오면 말 할 힘도 없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3.1.3 직장의 현실과 제도간의 괴리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눈치 보게 되는 직장문화’, ‘교대근무자는 배제된 제도’, ‘규정보다 강력한 수간호사의 의견’의 3개 주제는 ‘직장의 현실과 제도간이 괴리’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1.3.1 눈치 보게 되는 직장문화

선후배의 서열이 엄격한 간호조직 안에서 불가피한 집안일로 양해를 구하고 일찍 퇴근을 해야 하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 근무도중 잦은 통화를 해야 할 경우 동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하게 되며, 선배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되어 직장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되지 않을까 심적으로 불편하고 걱정스런 감정을 격고 있다. 또한 마음 한 구석에는 곤궁에 처한 자신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도 이를 내색하지 못하여 힘겨워했다.

“다들 여자고, 애도 길러본 선생님들 이자나요. 그런데도 눈치 주는 게 느껴져요. 유축 할 때도 눈치 보이고요.”

“애기가 아프다고 엄마(친정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제가 간호사니까 애기가 계속 칭얼대니까 급한 대로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애 키우는 건 처음이고, 소아과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0분만 일찍 퇴근해야겠다 싶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데,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라고. 유난떨지 말라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3.1.3.2 교대근무자는 배제된 재도

교대근무로 완전한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였으며, 기혼자를 위한 탄력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 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바가 적은 것이 현실이며 특히 간호사의 업무특성과 근무조건에서는 모두 배제된 제도였다.

"병원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행정직이나 일반 상근 근무자들만 이용이 가능하죠.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에요. 저처럼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용이 어려워요. 데이(day) 때도 안 되고 이브닝(evening) 때도... 아이를 맡길 수가 없고,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집 앞에 24시간 하는 사설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3.1.3.3 규정보다 강력한 수간호사의 의견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지만, 직장 사정에 따라 암묵적으로 무시되었다.

"육아휴직... 안된대요. 중간번이 없다고, 무조건이요. 안 그러면 부서 이동된다고. 부서가 이동되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데.. 자신도 없고요.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도가 있으면 뭐해요. 이용할 수가 없는데. 제도보다 무서운 건 유엠챔(수간호사)이에요."

3.2 일과 양육 양립에 대한 외적·내적 갈등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의 두 번째 범주는 일과 양육 양립에 대한 외적·내적 갈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범주에는 '사라진 나', '무능한 엄마로써의 자책', '직업유지에 대한 갈등', '현실적인 문제로 망설임'의 4개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3.2.1 사라진 나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출산 후 신체변화에 대한 불만', '미혼친구들과의 겉도는 대화', '나를 위한 시간이 없음'의 3개 주제는 '사라진 나'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2.1.1 출산 후 신체변화에 대한 불만

연구 참여자들은 출산 후 신체적, 생리적, 기능적 변화 측면에서 나타나는 몸의 외형적 변화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여성으로써의 위축감을 느끼고 있었다. 영화 속 멋진 주인공처럼 소위 '워킹 맘'을 꿈꾸었으나 현실은 일과 육아 그리고 가사 일을 병행하는 바쁜 삶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 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연예인들처럼 저도 멋진 워킹 맘이 될 줄 알았지요. 이렇게 애기 낳고 살이 안 빠질 줄은 몰랐어요. 예전보다 살이 찌니까 맞는 옷도 없고, 정말 아줌마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속상하죠. 솔직히 일하랴 집안일 하랴 너무 힘이 드는데 살은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돈 주고 운동 다닐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깝고.. 제가 꿈꾸던 '엄마'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아줌마에요."

3.2.1.2 미혼친구들과의 겉도는 대화

최근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친구들 대부분은 미혼이었다. 친구들과 대화 시 자신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해받지 못하거나, 연구 참여자 역시 미혼친구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 결혼을 빨리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친구들끼리 필리핀 가는데, 전 못가죠. 갈 수가 없죠. 오프야 뺄 수 있지만 애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도 개네들도 내 애기에 공감 못하는 것 같고, 저도 친구들의 일상 대화에 공감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개팅을 했다느니, 뮤지컬을 보러 간다느니..., 영화관 간지도 오랜데... 요즘 문화생활과는 좀 멀어진 느낌이에요. 결혼 하지 않은 친구들하고 점점 거리감이 느껴지고 만나는 동안에도 집안일이 걱정되고 그래요."

3.2.1.3 나를 위한 시간이 없음

연구 참여자들은 일과 양육 양쪽모두의 병행으로 휴일에도 가사와 육아로 여전히 바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어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 하였다.

"아이 출산이후에는 저를 위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애기한테 충분한 시간을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저를 위한 시간은 항상 부족해서 늘 피곤하죠. 요즘은 낮잠 한번 푹 자고 싶어요. 다른 것은 안 바래요. 인터

넷 쇼핑을 해도 애기 물건만 보게 되고, 모든 일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다보니 지금은 제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직장, 애기, 이게 다에요."

3.2.2 무능한 엄마로써의 자책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내 아이에게 소홀한 엄마', '혼자 있는 자녀에 대한 안쓰러움' 의 2개 주제는 '무능한 엄마로써의 자책'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2.2.1 내 아이에게 소홀한 엄마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할 시기에 그렇지 못한 양육조건에 대해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었다. 아이를 자신이 직접 키운다면 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자신의 소신대로 양육하고자 하나 육아를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했다.

"병원에서 애기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아기가 생각나요. 남의 애기는 이렇게 하루 종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우리 아기는 1주일에 겨우 한번 보니, 휴~ 왜 이 일을 하나 싶기도 해요. 물론 어머니(시어머니)께서 잘 봐주시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해요."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제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늘 부족한 엄마인 것 같아서 늘 미안하죠."

3.2.2.2 혼자 있는 자녀에 대한 안쓰러움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양육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녀가 사랑을 요구할 때 세심하게 어루만져 줄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어요. 데이 근무 끝나고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보면 아이가 울다 손가락 빨고 잠든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참 아파요.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도 가야하는데 데려가지도 못하고... 제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도 오히려 아이 진료 받는 게 어렵더라고요. 직장 때문에 엄마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있어야 하는 아이생각..."

"나이트 근무 끝나고 퇴근하면 많이 피곤하죠. 그럴 때는 아이들도 같이 옆에서 낮잠을 자면 좋은데... 아이 재우다가 제가 먼저 잠이 들어요. 깨어나 보면 잠든 엄마 옆에서 혼자 조용히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짠하죠. 기저귀가 흠뻑 젖어서 불편 할 텐데도..."

3.2.3 직업유지에 대한 갈등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남보다 뒤쳐질 것 같은 두려움'의 2개 주제는 '직업유지에 대한 갈등'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2.3.1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의 바람직한 조건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직 혹은 퇴직의 갈등을 느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직을 통해 대면하게 될 새로운 직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교대근무가 없는 곳으로 이직을 할까 고민하면서도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적응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직결정이 망설여지더라고요.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안 그래도 요즘 깜빡깜빡하는데, 그나마 업무와 인간관계에 익숙한 이곳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3.2.3.2 남보다 뒤쳐질 것 같은 두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휴직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 다른 동료들에 비해 도태되지 않을까, 복직 시 나의 유능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고 하였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쉬고 싶은 생각은 들지만... 간호학 공부가 쉽지도 않고 어렵게 국가고시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쉬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지금 그만 두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죠."

"병원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가기 전 까지 육아 휴

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출산 후 10개월 쉬었다가 나왔는데도 병원에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복직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선후배에게 물어보고 일하고 있어요. 더 쉬면 또 그만큼 변화된 업무에 적응해야 하고... 저는 자신 없어요."

3.2.4 현실적인 문제로 망설임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경제적인 이유로 미룸', '가족 건강을 위한 희생'의 2개 주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망설임'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2.4.1 경제적인 이유로 미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으로 기관이나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 지불해야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의 경제적 위축을 염려하고 있었다.

"아이 기저귀랑 분유 값만 한 달에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엄마에게 아이 봐주는 비용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둬야지 하다가도 당장 돈 때문에 그만두지 못해요.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하고 남편 월급으로만은 힘들죠."

"친한 언니들 보니 아이들 교육비로 꽤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좋은 유치원을 보내거나 아이 교구 사주려면... 여유 돈이 있어야 하고 지금보다 아이가 더 크면 점점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힘들어도 좀 참아야겠죠."

3.2.4.2 가족의 행복을 위한 희생

연구 참여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불규칙한 근무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신들의 위치를 인식하고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희생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른들은 제가 대학병원 간호사인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시고 또한 좋아하세요.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는 나이이시고 또 병원에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되기도 하니까요. 제가 아이 양육으로 이직하게 되면.. 병원에서 직원이라 지원되는 의료비 혜택도 무시할 수 없죠."

3.3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과의 타협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의 세 번째 범주는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과의 타협으로 나타났으며, 이 범주에는 '양립의 균형 잡기', '가족의 협조와 배려'의 2개 주제모음이 도출되었다.

3.3.1 양립의 균형 잡기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부모님의 육아방법을 받아들임', '아줌마임을 인정함', '집안일에 한쪽 눈을 감음'의 3개 주제는 '양립의 균형 잡기'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3.1.1 부모님의 육아방법을 받아들임

첫 육아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 일과 병행하면서 육아는 부모에게 대부분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양육에 대한 주도적인 입장이 되지 못해 부모와의 갈등도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부모님의 육아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신과 타협했다.

"사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제가 일일이 간섭하면 서로 힘들어질 뿐이더라고요. 엄마가 나도 별 탈 없이 키우셨으니, 엄마에게 믿고 맡겨야죠."

"젖병은 꼼꼼하게 삶고 소독해야 하는데... 그냥 물로 세척해서 다시 주시고. 그러면 장염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막 이유식 시작했는데.. 어른들 식사하시면서 이것 저것 아무거나 먹이세요. 아이가 잘 먹는다고... 아토피도 있어서 알레르기 음식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도.. 그렇게 음식을 가리면 아이 잔병치레가 더 심해진다고 하시죠."

3.3.1.2 아줌마임을 인정함

문화적 생활과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즐기고 있는 미혼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순간 위축되었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다.

"남들과 비교하기 보다는 지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해요. 예전 옷들은 타이트한 정장 마이로 상의를 입었지만 아이 데리고 다니려면 편한 옷이 최고죠.

아줌마는 아줌마다워야죠"

"결혼 전에는 식당에서 아이 기저귀 갈거나 모유수유 하는 아줌마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곤 했는데.. 이젠 이해가 되요.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서 먹으려면, 아이가 울어요. 아이를 엎고 서서 먹다 보면 라면이 퉁퉁 불어요. 그냥 허기를 채우느라 먹는거죠"

3.3.1.2 집안일에 한쪽 눈을 감음

연구 참여자들은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실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수용하려는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자 하였다.

"이전에는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잘 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요즘은 하루쯤 청소도 안하고, 집이 좀 어질러져 있음 어때 하고 쿨하게 생각해요. 중요한건 제 정신건강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안해야 문제가 안 생겨요"

3.3.2 가족의 협조와 배려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가족의 지원과 격려', '든든한 지원군인 남편'의 2개 주제는 '가족의 협조와 배려'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3.2.1 가족의 지원과 격려

연구 참여자들은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기 위해 가족 자원을 발굴과 대처방안을 탐색을 통해 균형 잡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기 출산 후 한동안은 내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나의 주도하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몸이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편이에요. 가령 나의 근무표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남편과 부양육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3.3.2.2 든든한 지원군인 남편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남편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그러한 행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남편이 요즘은 많이 도와줘요.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제가 밤 근무 하거나 오버타임으로 퇴근이 늦어지면 남편이 먼저 와서 아이를 챙겨주고 그래요. 돌전에는 남편도 아이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요즘은 아이가 아빠아빠하고 따르고 그러니 같이 놀이터도 가고 간식도 챙겨주고 남편 아니면 이렇게 직장생활 병행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늘 고마워하고 있어요"

3.4 양립을 위한 성장 욕구와 노력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의 네 번째 범주는 양립을 위한 성장 욕구와 노력의 범주로 나타났으며, 이 범주에는 '양립의 경험을 일과 가정에 적용하기', '일과 가정을 위한 노력', '나의 직업적 존재감과 가치 확인하기'의 3개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4.1 양립의 경험을 일과 가정에 적용하기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소통능력 향상으로 가족의 긍정적 관계 유지', '자녀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증가', '돌봄에 대한 의식 확장'의 3개 주제는 '양립의 경험을 일과 가정에 적용하기'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4.1.1 소통능력 향상으로 가족의 긍정적 관계유지

건강관리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습득하기도 한다. 역으로 직장에서 배운 대인관계기술을 가정에 접목하여 다른 여성에 비해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

"가족들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직장처럼 내일과 남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하니깐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더 말을 조심해요. 그리고 정말 속상하거나 힘들 때는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 서로 오해하는 부분도 적어지고 각자의 일에 대한 고민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3.4.1.2 자녀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증가

영유아의 신체적·생리적·정신적 요구를 사정하고 실질적인 간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습득한 지식을 자신의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용할 수 있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었다면 아마 첫 자녀 출산 한 이후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저도 어려웠지만 병원에서 접해본 영유아 건강문제와 간호경험이 실제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3.4.1.3 돌봄에 대한 의식 확장

가족 체계 안에서 가족의 생리와 각 발달단계별 영유아의 특성을 인지하고 경험했던 바를 임상현장에서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고 있었다.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환자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산과병동 환자들이 말 못하는 어려움이나 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 이제는 그 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분들의 두려움을 공감할 수 있어요."

"소아 환자들 보면 내 아이를 보는 것 같아 주사 놓을 때도 더 조심스럽고 아이가 겁먹지 않도록 설명하고 영유아들의 요구에도 더 잘 응하고... 학교에서 배운 발달단계별 영유아의 특성도 이젠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되요. 역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3.4.2 일과 가정을 위한 노력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아이가 주는 행복감', '일과 가정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관리'의 2개 주제는 '일과 가정을 위한 노력'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4.2.1 아이가 주는 행복감

지금의 힘든 상황으로 인해 순간순간 지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아이양육과정에서 받는 현재의 행복감과 먼 훗날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고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며 위안을 삼고 있었다.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아이를 보면 병원에서 힘든 일 이 다 사라져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생각하게 되고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요. 이제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3.4.2.2 일과 가정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관리

본인이 선택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방송에서 보니 육아전문가가 일과 육아가 상충될 때 일을 포기하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둘 다 가능하게 하기위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고 있어요. 가령 저는 새벽시간을 좀 더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 날 하루를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봐요. 처음에는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법 습관이 되어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요."

3.4.3 나의 직업적 존재감과 가치 확인하기

기혼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경험 중 '간호사 직업적 사명감에 대한 뿌듯함과 보람', '역량 개발에 대한 준비와 기대'의 2개 주제는 '나의 직업적 존재감과 가치 확인하기'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3.4.3.1 간호사 직업 사명감에 대한 뿌듯함과 보람

자녀양육에서는 아직까지 미숙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업무에서는 건강관리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로써의 역할에 대하여 직업적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연구 참여자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직업적 전문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이에 따른 간호업무에서 성취감, 보람을 느끼고자 하였다.

"아이 때문에 정신없이 출근해서 피로하지만 제가 제공한 간호에 환자들이 고맙다고 할 때 뿌듯하고 그때 제 존재감이 살아나요. 일하는 동안 가끔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일에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건 사실 힘들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요. 대학에서 물론 아동간호학을 배웠는데.. 그건 이론이구요. 실제는 또 다르네요. 하지만 병동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어요. 00 엄마보다는 00 선생님, 00 간호사라는 호칭에 더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3.4.3.2 역량 개발에 대한 준비와 기대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직 여성으로써의 직업적 가치와 의미를 찾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선임간호사들을 모델링하며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위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었다.

"선배 간호사들이 대단해 보여요. 아이 키우면서 병원 일까지 잘하시는 선배들을 보면 많이 배우고 또 닮고 싶어요.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자기계발을 위한 꿈도 꾸어보고, 나름의 계획도 세워보게 되요. 한편으로는 내가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해요.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안정감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멋진 간호사로 인정받고 싶어요."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들의 일과 가정 양립의 경험은 29개의 주제와 12개의 주제모음,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최종 도출된 4개의 범주는 '일과 양육 병행에 대한 현실', '일과 양육 양립에 대한 외적·내적 갈등',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과의 타협', '양립을 위한 성장 욕구와 노력'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들의 일과 가정 양립경험에 관한 논의사항과 정책적·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일과 양육 병행에 대한 현실에서는 전업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가사의 대부분을 떠맡음으로써 힘겨워하고 있었으며, 교대근무로 일하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자녀건강문제나 돌봄 문제로 인해 첫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부모에 대한 죄송함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아이양육에 관심이 없거나 협조하지 않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엄마로써의 역할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마다 이직이나 퇴직을 고민하고 있었다. 한편, 선후배의 서열이 엄격한 간호조직 안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도 이를 내색하지 못하여 힘겨워했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과거 여성의 몫이었던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역할분담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하여[16] 일 중심에서 일과 가족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12]. 특히 맏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은 양육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어린자녀를 돌보는 상황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 일, 가사, 육아를 모두 훌륭히 해내야 한다는 주변의 바람과 사회적 시선은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17].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에게 두고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양육부담감을 더 높게 인식하여[16] 직장과 가정의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고민과 갈등은 임신을 고려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자녀 출산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12]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8].

둘째,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외적·내적 갈등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일과 양육의 병행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과중된 업무량과 교대근무의 열악한 병원생활의 현실에 부딪히면서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양육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였으며, 자녀 양육의 바람직한 조건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직 혹은 퇴직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직을 통해 대면하게 될 새로운 직무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위축의 염려로 이직 혹은 퇴직의 결정도 쉽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

하는 자신들의 위치를 인식하고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희생해야한다고 생각 등으로 일과 가정에 대한 내외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강하여 양육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데[19,20], 이러한 강박으로부터 벗어나 일하는 모성의 역할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일하는 엄마와 집에 있는 엄마에게서 영유아 자녀의 발달위험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21]에서 보듯이 여성의 취업이 아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현명하고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18].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연구에서도 산후 우울증, 주부우울증, 양육스트레스와 같이 어머니의 체력이 저하되어 지친 경우, 양육행동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어머니 자신만의 시간을 갖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체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22].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과의 타협에서는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주도적인 입장보다는 부모님의 육아방법을 수용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었다. 또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한계를 인정하며, 가족 역할분담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양립노력을 계속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양육방식의 차이를 보이는 대리양육자와의 양육갈등은 Kim과 Seo(2007)[23]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으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가족원의 협조와 지지임을 깨닫고 그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들이며, 또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더욱이 가족확대기의 맏자녀를 둔 초보엄마들의 정서적 어려움은 남편의 지지를 통해 감소될 수 있음을[24] 고려했을 때 가정 내 아버지의 실제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보니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25]. 즉,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과업으로 인식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대근무 간호사의 피로와 우울은 비교대근무 간호사 보다 더 취약하므로 교대근무 간호사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은 기관차원 즉 병원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26]. 자녀양육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 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참여를 허용하는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 일과 가정 양립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넷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양육과정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선택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성장할 자녀를 기대하며, 본인이 선택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성장욕구와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모색하고 일과 가정 모두 동시에 적용하고 있었다. 가족체계 안에서 경험한 가족의 생리와 각 발달단계별 영유아의 특징을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역으로 임상에서 배운 대인관계 기술이나, 실질적인 간호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가족의 건강문제와 자녀의 발달단계별 간호에 접목하여 다른 여성에 비해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었다.

직업가치 인식은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업 활동의 본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7]. 또한 건강 소비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8]. 본 연구 참여자들도 전문직 여성으로써의 직업적 가치와 의미를 찾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업적 전문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이에 따른 간호업무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자 하였다. 또한 직장 내 선임간호사들을 모델링하며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자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간호사는 지속적인 교육과 도전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발전을 해야 하는 전문직이며, 돌봄을 통해 간호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느낀다는 kim, kim과 kim(2013)[29]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들의 일과 가정 양립의 경험을 그들의 시각에서 탐색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족확대기의 기혼간호사들의 일과 양육

그리고 가사와 관련된 현상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특수한 양립갈등 경험과 대처의 경험이 분석되었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제공 및 이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경험의 내용을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세밀하게 나누지 않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즉, 일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어떠한 요인이 일과 가정 양립경험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 개개인마다 다른 주관성 구조에 따른 각 유형별로 분류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교육 및 효과적인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K. J. Doo., H. S. Yoo., “Marital Satisfaction of Expanding Dual-Earner Couples and It's Influential Variabl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4, No. 1, pp. 47-57, 2000.

[2] K. S. Kwon,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ing and difficulties of an inexperienced mother who nurtures an infant”,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3, No. 1, pp. 229-255, 2008.

[3] N. H. Kim, “Early childhood parents' perceptions of good father's roles and social roles for good fathering”,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8, No. 2, pp. 79-98, 2011.

[4] C. J. Kim, “Influence of ecological factor of working mothers toward the stress of childcare”. Chongshin University: Seoul. master's thesis. 2008.

[5] O. I. Lee, “A study on the infant & toddler's action caused the caregivers' difficulty in the routine care". The Korean Research Association for Childcare Practice, Vol. 7, No. 1, pp. 45-63, 2011.

[6] O. B. Jeong., S. H. Jeong., Understanding Marriage and family. Seoul: sigmapress. 2005.

[7] T. Takeuchi., Y. Yamazaki.,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a sense of coherence among Japanese registered nurse”, Japan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7, pp. 158-168, 2010.
DOI: http://dx.doi.org/10.1111/j.1742-7924.2010.00154.x

[8] E. J. Lee., S. W. Shin., “The Effect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on Fatigue and Depression among Shift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4, pp. 2256-2264, 2014.

[9] H. R. Min,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nurses' maternal role conflicts and attempt of turnover”. Hallym University:Gangwon. master's thesis. 2005.

[10] H. O. Kim. “The Effect of Work-Family Balance on Outcomes among Married Nurse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haustion”. Kyunghee University:Seoul. doctoral thesis. 2015.

[11] T. D. Allen., D. E. L. Herst., C. S. Bruck., M. Sutton., “Consequence associated with work to family conflict: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 5, No. 2, pp. 278-308, 2000.
DOI: http://dx.doi.org/10.1037/1076-8998.5.2.278

[12] S. Y. Kim., S. M. Kim., K. Y. Lee., “A qualitative study on dual earner families' work and family lives for ideal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5, No. 1, pp. 93-116, 2011.

[13] S. A. Hong, “Case studies on work-family balance policies in eight countrie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8.

[14]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6, 1978.

[15] Y. S. Lincoln., E. G. Guba., “Effective evaluation(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University Press, 1985.

[16] G. J.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work` family compatibility support policy on child foster burden and childbirth attitude”. Myongji University:Seoul, doctoral thesis. 2008.

[17] K. E. Kim., Y. J. Chang., “A hermeneutics phenomen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experiences of rearing their firstborn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9, pp. 31-43, 2008.

[18] N. H. Kim., E. J. Lee., S. Y. Kwak., M. R. Park.,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arenting burden of working mother with young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9, No. 3, pp. 188-200, 2013.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3.19.3.188

[19] J. W. Sung., S. Y. Park., “Maternal guilt and its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child ag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1, pp. 123-145, 2011.

[20] S. N. Yang., C. S. Shin., “Work-family conflicts: Challenges of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 No. 3, pp. 70-103. 2011.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1.31.3.70

[21]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Basic Analysis Report of Korean Children Panel Survey 2010”, 2011.

[22] S. N. Choi,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fant Temperament, Nurturing Behavior, effect on Infant Development-The Mediating effects of Nurturing Behavio”,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8, pp. 5160-5171, 2015.

[23] E. J. Kim., Y. H. Seo., “A qualitative study on child-rearing by grandpar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8, pp. 175-192, 2007.

[24] S. E. Kim., H. Y. Choi.,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husbands' support on parent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5, No. 8, pp. 1-11, 2007.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15.16.8.5160

[25] K, E. Kim,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a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566-4575,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566

[26] Lee EJ, Shin SW (2014). The Effect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on Fatigue and Depression among Shift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4 pp. 2256-2264,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4.2256

[27] Lee SN, Kim ES(2015).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8 pp. 5304-531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8.5304

[28] S. I. Choi., M. H. Sung., “Relationships among professional identity,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emergency department(E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 Vol. 15, No. 6 pp. 3725-3733,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6.3725

[29] M. J. Kim., S. J. Kim., K. B. Kim., “Phenomenological Approach on Self-Esteem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9, No. 2 pp. 138-149, 2013. DOI: http://dx.doi.org/10.14370/jewnr.2013.19.2.138

김 한 나(Han-Na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5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학

김 정 선(Jeong-Seon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신보건간호학석사)
- 2014년 1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수료)
- 2014년 9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정신건강, 중독, 상담